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박 동섭 littleegan@gmail.com

‘마음’은 머릿속 혹은 피부를 경계로 개체의 내부에 있는 것일까?

문화인류학의 고전적인 모노그래프를 읽다보면 마음에 관한 우리의 상식(예컨대 ‘마음은 피부를 경계로 개체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혹은 ‘우리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용기와 같은 것이다’ 등등)과는 다른 독특한 ‘마음관’을 자주 만나게 된다.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관을 살펴보면, 통상 ‘정신’ 혹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관념이 실로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마음을 몸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은 몸에서 분리되어 있거나 역으로 몸에 썩어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믿는 민족도 엄연히 존재한다. 혹은 인간의 마음은 관계 맺는 주위 동물과 공유되어 있어서 그 동물의 영이 사람의 병을 일으킨다고 믿는 민족도 있다.

이러한 세계 각 민족의 심리학적 관념에 관한 연구를 서양학자들은 민족심리학(Ethno-psychology)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Ethno’라는 말에는 ‘정통의’ 혹은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볼 때 ‘민족적’이라는, 미묘하게 ‘주변’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통’은 서양 사람들이 만든 우리가 아는 ‘심리학(Psychology)’을 가리킨다. 우리가 ‘민족심리학’ 연구에서 밝힌 다양한 마음에 대한 정의(예컨대 인간의 마음은 주위 동물과 공유한다는 생각)를 접하고 기묘해 하는 건, 평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생각에서 미묘하게 혹은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마음을 논의할 때 우리 대부분이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는 전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몇 년 전 필자가 참석한 교육심리학회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맡은 연구자가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아님 반대였던가?)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 놀랐다. 이것은 마음과 몸의 관계를 자로 잰 듯 딱 이등분하는 ‘데카르트적 심신이원론’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이루어진 토론 시간에 나는 당돌하게 ‘마음의 사회적 기원’에 관해 핏대를 올려 피력하니 그곳에 있던 백발이 성성한 다른 교육심리학자가 ‘우리는 심리학 연구자들이어서 사회라든지 문화, 또 제도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나를 나무라듯이 말하던 모습이 (예상은 하였지만)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런 발언은 심리학자들이 가진 생각의 전제를 포착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단서가 된다. 그날 그 학회에서 쏟아졌던 교육심리학자들의 발언들을 조망해 보면 그들이 지닌 ‘마음’에 대한 암묵의 전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마음이란 사회와는 대립되는 개체가 내부에 갖고 있는 어떤 ‘실체’고, 그것은 몸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머릿속 혹은 뇌 속에 있다.

주류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마음에 관한 이런 생각은 거의 상식이 되어서, 조금 거리가 있는 마음에 대한 정의(예컨대 비고츠키의 ‘마음’은 사회문화적 도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등)를 만나면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 “어떤 특정한 동물과 마음의 기능을 나눠 갖고 있다” 같은 말을 듣고 기이하게 느끼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문제는 마음에 대한 그와 같은 전제는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설정일 뿐이어서 기술하는 단위

(unit)를 바꾸면 ‘마음’에 대한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주류심리학의 경우 분석단위를 오로지 ‘개인’ 혹은 ‘개체’에 둔다). 게다가 분석 단위를 재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주류 심리학자들이 잠정적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한 기준을 모든 것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진실로 쉽게 믿어버리게 된다.

‘기술(description)’에 의해 구성되고 탄생되는 ‘마음’

여기서 잠시 나를 포함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영화촬영의 카메라 워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사고 실험’을 시도해 보자. 만약 처음에 누군가에게 카메라를 클로즈업 시켜 렌즈 안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다 카메라를 이동해서 줌아웃하면 처음의 영상과는 다르게 주위 사람, 주위 공간 나아가 공원과 회사 건물, 도시철도와 도시의 경관까지 보이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처음 잡힌 얼굴의 주인공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혹은 지탱해 주는 배경이고, 엄밀히 말하면 시스템이다. 이러한 개체를 넘어선 시스템도 그것을 하나의 기술 단위 혹은 분석 단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단위에 적합한 새로운 마음에 관한 관점을 모색해 보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343

×

822

만약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요청을 받으면 여러분은 아마 281, 946이라는 답을 어렵지 않게 내어 놓을 것이다. 또 어떻게 이 답이 나왔는지를 물으면 “343에다가 822를 곱하였습시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고 답할 수 있다.

343

×822

686

686

2744

=281946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고 싶다. “문제를 푼 것은 정말로 당신(고립된 개인)인가?” 하고. 아마 돌아오는 대답은 “바로 이 내가 당신 눈앞에서 이렇게 곱셈하는 것을 봤잖아요.” 일 것이다.

지금 던지는 물음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계산 절차를 약간 변경시켜보자. 예컨대 343×822라는 문제를 앞에서 사용한 방식인 세로셈 말고 그냥 가로셈으로 해서 풀게 하면 어떻게 될까? 당장 우리 큰 아이(초등학교 4학년)에게 그렇게 해서 풀어보라고 했더니 불편해 하며 반발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곱셈나눗셈을 가로셈으로 푸는 걸 곤란해 할 것이다. 설령 여기까지는 문제를 풀었어도, 단위수가 많아지면 앞에서 풀었던 세로셈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답을 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떠올리며 아까 던진 물음을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이 문제는 행위자 혼자서 풀었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왜 똑같은 문제인데, 조건이 달라지면 해결하기가 힘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산수 문제를 푸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도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가시화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

위 풍경도 시각에 담을 수 있도록 카메라 렌즈를 줌아웃 해야 한다. 그래서 후기 비고츠키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제임스 워치(James Wertsch)는 개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라는 고정된 피사체를 넘어서서 ‘특정한 도구를 갖고 행위하는 개인; person(s)-acting-with-mediational-means’이라는 새로운 분석단위를 주장했다.

이렇게 고정해놓았던 카메라 앵글을 다양하게 움직여 보는 작업은 여러 영역에서 이뤄져왔다. 의식과 관념의 집합성을 강조한 뒤르켐(Durkheim)의 ‘집합표상’이나 ‘집합의식’과 같은 개념은 인류학에서는 거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데, 매리 더글러스(Mary Douglas)라는 인류학자는 ‘제도’와 ‘법’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같은 자극적인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고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조직 혹은 법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학습에 관해서도 사태는 비슷하다. 이미 카메라 앵글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령 학습을 심리학의 전형적인 논리 전개방식인, 어떤 특정한 지식과 기능을 개인의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당연히 카메라 앵글은 ‘개인’을 클로즈업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역사적 시스템을 더 자세하게 기술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의 구체적인 조직적 모델로서 도제제도에 주목하거나, 회사와 조직 그 자체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하는 ‘조직학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메라를 줌인하고 줌아웃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주류심리학이 마음을 탐구하는데 개체 혹은 개인의 내부만을 고집하는 지독한 편협함에 피로를 느낀 일부 심리학자들 중(비고츠키 연구자도 있다)에는 문화나 사회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이 가끔 있다. 어떻게 기술하는지의 레벨을 변경하면 모든 난제가 해소된다고 믿는 맹목적인 신념을 가진 이들이다.

그러나 카메라 앵글을 움직이는 작업은 어떤 특정한 레벨로 볼 때의 맹점을 부각시킬 수는 있어도 **바뀐 레벨에(예컨대 개인에서 사회로) 고착했을 때 나타나는 맹점 그 자체의 수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집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마을 풍경을 카메라로 포착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집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줌인해서 확 당기면 집 앞에서 있는 ‘개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게 된다.

예컨대 흔히 ‘한국사람은 OO적이다’, ‘미국사람은 XX적이다’ 같은 진단을 하면서 그것을 스테레오타입으로 심리학에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단은 **개인에서 사회 혹은 문화로** 공간적으로 이동한 것은 맞다.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문화에 대해 기술하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말을 바꾸면 문화를 고정적인 실체로 다루는 바람에) 그것 자체의 허구성 혹은 잠정적인 성질을 자각 못하게 된다.

다만 **이 작업에 대한 반성적 검토**는 연구자의 카메라 워크가 어떤 레벨에 고정되어 버려서, 개인이 중요하다, 사회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같이, 어느 하나가 옳다고 주장하는 지난한 싸움을 멈출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다.

카메라 앵글을 방치해 두면 언젠가는 고착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류심리학에서 마음을 개체의 내부에 있는 어떤 실체로 ‘물상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찍이 마음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이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한 사람은 그레고리 베이트슨 (Gregory Bateson)이다. 그는 우리가 ‘개인’ 혹은 ‘개인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애당초 거기에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혹은 문자 그대로 ‘내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역동적인 마음관을 주장했다.

베이트슨은 일단 사람을 ‘개체’로서 환경 혹은 물질로부터 독립시켜서 그 개체만을 혹은 그 개체의 내부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주류심리학의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제임스 워치가 주창했던 것처럼 생물(마음 혹은 정신)과 환경(물질-예컨대 언어 혹은 도구)의 총체야말로 인간을 연구하는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마음의 역동성을 표명하기 위해서 ‘나’라는 정신 시스템의 경계선을 어디서 그으면 좋을까? 하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졌다.

“내가 시각장애인이고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인가? 나의 정신 시스템은 지팡이의 손잡이인가? 나의 피부를 경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가? 지팡이의 한 가운데인가? 아니면 지팡이의 끝인가?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무의미한 물음이다.” (Bateson, 1972)

베이트슨이 묻고 있는 것은 지팡이를 들고 길을 찾는 시각장애인이 ‘나’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개인의 경계인가?’ 하는 것이다. ‘지팡이를 쥔 손’까지가 ‘개인’인가? 아니면 지면을 느끼는 ‘지팡이의 끝’까지가 ‘개인’의 경계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해 보통의 심리학자 그리고 많은 필부들은 자명한 것처럼 피부 등을 경계로 개인의 ‘내부’ 혹은 ‘외부’와 같은 정적인 공간에 관해 말을 하겠지만,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베이트슨의 대답은 이렇다. 지팡이로 지면을 두드리며 길을 찾아서 걷고 있을 때에는 개체의 인간을 포함해서 지팡이의 끝까지가 개인이고, 잠시 쉬기 위해서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았을 때에는 다른 시스템-계(系)-이 조직되어서 지팡이의 끝은 이미 ‘개인’의 경계가 아니게 된다 즉, 개인의 경계는 그때그때(moments) 사용하는 도구와 행위계(action system)와의 관계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은 어디에 있나?’ 같은 정적인 물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어떤 단위 수준에서 마음을 정의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로 말이다.

이렇게 보면, 마음은 주류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내부’에 있고, 그 ‘내부’라는 정의에 심한 위화감을 느끼는, 사회나 문화 등을 강조하는 사회학자나 문화인류학자 혹은 일부 비고츠키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 있다. 반면에 이동의 미학을 중시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내부(개체) 외부(도구 그리고 사회)를 막론하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